

관광교류협력사업과 연계지역의 관광발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금강산관광사업과 강원도 고성군의 발전 방안을 중심으로 -

장 인 원*

〈요 약〉

본 연구는 국제적 상호의존성이 증대되고 국제협력의 유력한 수단으로 관광교류협력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오늘날 남북한 관광교류협력사업의 중요성과 사업 그 자체에 국한된 많은 정책적 논의, 즉 남북한 관광교류 촉진 및 확대, 남북관광 활성화 측면에 주로 관심이 집중되었던 기준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관광교류협력사업과 주변지역의 발전적 측면에서 금강산관광사업과 강원도 고성군을 중심으로 관광교류협력사업이 연계지역의 관광발전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속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관광교류협력사업이 연계지역에 미치는 6가지의 관광발전 영향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영향요인에 대한 연계지역 관광개발주체간의 서로 상이한 의식상향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관광교류 협력사업의 영향요인과 10개 영역을 중심으로 한 연계지역 관광부문간의 상호관계 및 특징 등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규명한 본 연구 결과와 시사점들은 미시적 차원에서 관광교류협력사업인 금강산관광사업과 주변지역 고성군의 관광발전 방안을 강구하고, 나아가 거시적 차원에서 남북한 관광교류협력사업과 연계 지역의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자료를 제시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확대·발전될 관광교류협력사업과 연계지역의 관광발전문제와 관련영향요인에 대한 실증적인 사례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관광교류협력사업, 금강산관광, 연계지역 관광활성화, 관광발전 영향요인

에 이르렀다.

국제협력이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의 개방화·국제화시대에 관광교류협력에 대한 중요성은 사회·문화·경제 등 국가간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간 또는 지역간의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그리고 인적교류를 통하여 국가간 친선을 증진하고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국제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편익에서 비롯된다(Broyley & Var, 1989; Edgell, 1990; Neigrier, 1993; Bianchini, 1994).

국제적 상호의존성이 증대되고 국제협력

I. 서 론

관광의 역할은 시대의 변화와 세계적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 영역을 꾸준히 넓혀가고 있다.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관광의 초기 역할은 지구촌의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국제적 관계 역할, 즉 국가간 문화교류·협력·친선 등 국제적 상호의존성에 바탕을 둔 국제협력이라는 대전제 하에 각 국가의 중요한 정책으로 변화하기

* 서라벌대학 국제관광경영과 조교수 (kangiw@sorabol.ac.kr)

의 유력한 수단으로 관광교류협력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오늘날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발전이라는 민족의 대명제 앞에 남북한 관광교류협력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반세기 동안의 문화적 이질감과 상호 적대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민족공동체의 번영된 삶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관광교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이장춘, 1998). 이러한 관점에서 1998년 11월 18일 민간차원에서 최초로 시작된 남북한 관광교류협력사업의 하나인 금강산관광사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동해항 바닷길을 이용한 해로관광에서 시작된 금강산관광사업은 2003년 육로관광으로 확대·시행되어 현재까지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온 남북교류와 화해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는 민족염원이 담긴 숙원사업으로서 그 의미를 찾아 볼 수 있으나(현대경제연구원, 1999; 현대아산, 2005), 다른 한편으로는 관광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남북관광이라는 일반적인 현상 이외에 관광교류협력사업과 연계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접근 필요성도 그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관광교류협력사업의 특수성에 기인하여 남북관광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정책적인 노력에서 연계지역의 발전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관광교류협력사업으로서 금강산관광에 이어 개성·백두산 관광에 대한 확대 협의가 이루어 진 후 설악산과 제주도를 연결하는 남북연계관광을 구상하겠다는 정부차원의 발표(건설교통부, 1999; 문화관광부, 2001; 2005)

도 있었지만 추상적이며 아직까지 실효성이 없는 형편이다. 금강산관광이 시행되면서 초기 해로관광 거점도시로서 남북관광의 통로 역할을 담당했던 동해시의 경우, 관광교류협력사업을 통하여 관광발전을 기대했지만 육로관광이 시행되면서 오늘날 유명무실한 과거의 남북한 관광교류협력사업 거점항구도시로만 그 흔적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현실은 지금까지의 노력이 관광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관광자원 및 관광상품 개발, 관광수용체계의 확충, 남북관광 활성화 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사실에서 연유되며, 관광교류협력사업을 연계한 주변지역의 파급효과나 기대효과에 대한 논의는 그렇게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관광교류협력사업 그 자체에 국한된 많은 정책적 논의, 즉 남북한 관광교류 촉진 및 확대, 남북관광 활성화 측면에 주로 관심이 집중되었던 기존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관광교류협력사업과 주변 연계지역의 발전적 측면에서 금강산관광사업과 강원도 고성군을 중심으로 관광교류협력사업 연계지역의 관광발전 영향요인 및 특징 등을 실증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의 검토 및 정책의 동향

1. 관광교류협력사업 추진 배경 및 현실

남북한 관광교류협력사업은 1998년 11월 금강산관광을 시작으로 본격화 되었다. 1989년 1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국내기업인으로는 최초로 북한을 공식 방문하여 금강산관광개발사업 의정서를 체결함으로서 남북한 관광교류협력사업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 10여년이 지난 1998년 10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금강산관광개발사업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서 비로소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현대경제연구원, 1999). 1998년 11월 강원도 동해항에서 금강호의 취항과 함께 시작된 금강산 해로관광은 2003년 9월 육로관광으로 확대·발전되어 보다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2003년 12월에는 개성관광도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개성공단 건설이 지체되고 비무장지대 통행관련 남북한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연되다 2005년 8월과 9월에 3차례의 시범관광(약 1,500여명 개성시내와 박연폭포, 공민왕릉, 왕건릉 등 방문)만 이루어졌다(현대아산, 2005). 그리고 남북한간 첫 상업 목적의 항공기 운항을 통한 관광교류협력사업으로 의미가 있는 평양지역 중심의 관광사업(평양, 남포, 묘향산, 정주, 백두산)은 2003년 8월부터 11월까지 9회에 걸쳐 약 1,000여명의 방문이 이루어졌으나 북한 측의 요청으로 중단된 상태이며, 백두산관광 역시 2005년 시범관광 실시 후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2005년 7월 16일 현대아산(주)의 현정은 회장이 백두산을 포함하여 개성, 금강산 내금강의 관광사업 독점권을 인정받음으로서 앞으로 북한의 관광길이 보다 다양화될 전망이다(조

선일보, 2005년 7월 17일). 금강산관광에 이어 향후에는 개성관광은 물론, 백두산관광도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남북한간의 관광교류협력사업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남북한간의 관광교류협력사업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개성시범관광, 평양관광 실시 등 관광부문에서의 활발한 외적인 성장과 국내 여행업계의 활성화, 민족의 동질성 회복, 한반도의 긴장완화, 북한의 경제난 완화 등에 직·간접적으로 크게 기여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현대경제연구원, 1999; 현대아산, 2005; 김영윤, 2006).

이와 같은 다양한 성과 이외에 남북한 관광교류협력사업은 4가지의 통합적 효과에서 그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김영윤, 2006; 이장춘, 2001; 노경수, 1996). 첫째, 남북한 경제적 불균형(소득불균형) 및 지역발전 불균형을 타개할 수 있는 경제통합의 효과, 둘째 남북한간의 문화 이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문화통합 효과, 셋째 관광을 통한 국토통합의 효과, 즉 관광공간의 재배치로 국토기능의 균형 도모, 네째 한민족 번영의 토대를 구축하는 정치통합 기능과 역할에 그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다양한 영역에서 기대하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남북한 관광교류협력사업은 불투명한 국내외 정치적 상황과 정부의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민간기업의 개별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많은 갈등과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신용석, 2005; 권영섭, 2000).

2. 관련 선행연구 동향

관광의 역할과 기능은 비단 경제적 효과(Mathieson & Wall, 1982; Pearce, 1989; Cleverdon & Edward, 1990; Inskeep, 1991; William, 1996)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작용하고 있는 복합적인 효과(Broyley & Var, 1989; Neigrier, 1993; Bianchini, 1994)에서 그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다. 관광을 통한 교류와 협력은 국제관계에서 국가간 이해확대는 물론 평화증진에 있어서도 매우 효율적인 수단(Edgell, 1990)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WTO는 세계의 분쟁지역이나 분단지역에서 비정치적인 관광교류를 통한 이와 같은 효과들을 역설하고 있다(Asia Travel Tips, 2005; Frangialli, 2004; 문화관광부, 2001)

지역분쟁 혹은 지역분단이라는 특수성 아래 관광교류 및 관광효과에 대해서 Kim & Crompton.(1990), Zhang(1993), Butler & Mao(1995), Butler(1996), Leslie(1996), Yu(1997), Higgins-Desbiolles(2003) 등에 의한 해외선행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국내에서는 일부 몇몇 선행연구(Choi, 1998; 1999)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분석한 연구는 아직 빈약한 상태이다. 관광교류 및 관광효과와 관련하여 기존의 해외선행연구에서 제시되는 중요 분야들은 일반적으로 국가간 혹은 지역간 문화적 이해 도모, 상호협력관계 확대, 관광수입을 통한 국제수지 개선 및 국민소득 증대, 관광서비스산업 및 관련 부문의 고용증대 등과 같은 부분이다.

해외선행연구 가운데 Butler & Mao의 연구는 지역분쟁 혹은 지역분단이라는 특수

상황하의 관광교류 형태, 유형 및 특성 등을 국가별 사례연구를 통해 정형화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관광교류나 관광효과에 국한된 대부분의 기존연구와는 차별화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선행연구 역시 지역분쟁 혹은 지역분단의 특수성과 관광교류관련 연계지역의 관광발전 문제에 대한 접근은 아직 시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관광교류협력과 관련하여 국내선행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분야로 구별해 볼 수 있다. 즉, 관광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와 북한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연구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해진 대부분의 연구는 민간학계의 학술적 연구보다는 국책연구기관 내지 전문연구기관(국토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등)에서 남북관광교류협력과 관련한 정책연구가 중심이 되고 있다(장병권, 2006; 신용석, 2005; 김철원, 2002; 김연중, 2001; 권영섭, 2000; 안병민, 2000; 김연철 외, 1998). 이와 관련하여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정보 및 자료 교환, 관광교류협력 위원회 설치 방안 등은 일련의 주요 정책연구들이다.

관광분야 연구에서는 한국관광공사(2005; 2004; 2001; 1998) 및 심상진(2005), 장인봉(2004), 김성섭(2004), 박춘규(2003), 강원택(1999)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남북연계 상품개발, 북한관광특구문제, 금강산 및 개성관광 실태와 만족도 조사, 금강산관광사업 주민의식 조사 등의 선행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관광교류협력사업 연계 또는 주변지역의 관광발전문제와 관련한 연구는 장인원(2006)의 단편적인 유사연구가 있을 뿐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이광희, 2000).

관광교류협력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국내외 선행연구동향을 살펴보면 관광교류 형태와 특징, 관광교류 실태 및 효과, 관광교류협력 방안 등에 대한 접근이 일반적이었으며, 관광교류협력사업과 주변 연계지역의 발전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관광교류협력사업과 연계지역의 새로운 발전 차원에서 그 영향요인과 특징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한 본 연구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III. 연구의 분석틀

1. 연구과제

남북한간의 관광교류협력사업의 확대는 민족의 공통적 이념 공유, 그리고 현재진행형의 통일기반이라는 정치·사회적 의미(이장춘, 2001) 이외에, 남북한 공동 관광발전의 새로운 전기 마련은 물론 혁신적인 관광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더해 주고 있다.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장래에 북한관광 지역의 확대와 이에 따른 관광인프라 확충 등 하드웨어부문이나 관광홍보, 관광운영 등 소프트부문에 대한 개발과 관련하여 정부나 민간차원에서 보다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또한 이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투자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남북한간의 관광교류협력사업은 보다 활기를 띠게 될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남북한 관광교류협력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금강산관

광사업은 향후 남북관광교류사업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관광교류는 일반적으로 국가간의 친선 증진과 협력 기반 조성, 나아가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간의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와 관련하여 금강산관광사업은 남북 화해와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 자유와 평화의 새로운 관광이미지 형성, 북한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기반시설 확충 등 관광시장에서의 새로운 관광매력 창출과 관광수입 증대, 관광서비스 및 관련 부문의 새로운 고용 증대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광교류협력사업인 금강산관광의 배후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강원도 고성군의 현실은 관광교류 통관(transit) 지역으로서 현재 그 이미지와 역할이 강조되고 있을 뿐, 관광교류협력사업과 연계한 배후지역의 다각적인 발전을 유인할 수 있는 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고성군은 분단의 아픔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법률 제350호(1954. 1. 21 공포) 수복지구임시 행정조치법시행에 의해 현재 금강산관광의 중심지인 휴전선 이북의 고성읍, 장전읍, 서면, 외금강면, 수동면을 제외한 휴전선 이남의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을 행정관할구역으로 하고 있는 고성군은 금강산관광사업의 배후지역이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는 남북관광교류협력사업의 해당지역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간의 관광교류협력 사업인 금강산관광사업과 배후지원 지역인 고성군을 중심으로 관광교류협력사업의 영향요인과 그 특징을 실증적으로 조사·분석

하여 관광교류협력사업 연계지역의 관광활성화와 관광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관광교류협력사업 연계지역의 특성과 현실, 관광교류협력사업이 연계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영향요인, 그리고 이들 영향요인 간의 상호관계 및 특징 등에 대해서 조사·분석함으로서 미시적 차원에서 관광교류협력사업인 금강산관광사업과 주변지역 고성군의 관광발전 방안을 강구하고, 나아가 거시적 차원에서 남북한 관광교류협력사업과 연계지역의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자료를 제시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제와 단계적인 연구과정을 통하여 관광교류협력사업과 연계지역의 관광활성화와 관광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첫째, 관광교류협력사업 연계지역에 대한 관광부문의 현실과 특징, 그리고 관광교류협력사업과는 어떠한 상호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한다.

둘째, 관광교류협력사업이 연계지역의 관광발전에 미치는 영향, 즉 관광교류협력사업과 연계지역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향요인과 속성을 규명한다.

셋째, 관광교류협력사업의 영향요인과 연계지역의 관광부문 속성간의 상호 관계 및 특징에 대해서 규명한다.

2. 조사설계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 및 범위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남북한 관광교류협력사업인 금강산관광의 집결지역이며 통행지역인 강원도 고성군의 관광개발주체, 즉 지역주민, 공무원 및 관광전문가, 관광관련업체 종사자, 금강산관광 종사자 집단들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에 의해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4개 집단들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관광교류협력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연구에 포함시켜 각 집단들의 의식 성향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설문조사는 면접원이 응답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설문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한 후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도록 하는 자기 기입법을 이용하였다. 설문지는 총 220부를 배포, 회수하여 연구에 적용하기 미비한 표본을 제외한 189부(85.9%)만이 실증분석에 적용하였다(참조<표 1>).

설문조사에서 얻어진 최종적인 189부의 표본은 코딩 처리하여, 일반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윈도우용 SPSS 1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과제의 수행 및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이용된 실증적 분석 자료 내용과 자료 분석에 활용된 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표 1> 표본 개요

연구 대상	남북한 관광교류협력사업인 금강산관광 연계지역의 관광개발주체
조사 범위	강원도 고성군 공무원, 지역주민, 관광관련 업체종사자 및 관광전문가
표본의 크기	220부
유효 표본	189부 (85.9%)
조사 시기	2006년 3월 13일 ~ 3월 31일

첫째, 관광교류협력사업 연계지역의 관광 개발주체로서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관광부문의 속성과 특징, 관광교류협력 사업과의 관계는 기술분석, 빈도분석 및 포트폴리오(portfolio) 분석 등을 실시하여 파악하였다.

관광교류협력사업 연계지역의 관광현실에 대한 평가 척도로서 관광부문 발전도, 그리고 관광현실과 관광교류협력사업과의 상호 관계에 대한 평가 척도로서 관광교류협력사업의 중요도 등에 대한 특성은 빈도수와 백분율을 산출하는 빈도분석과 기술분석을 실시하여 규명하였다.

그리고 관광교류협력사업 연계지역의 관광부문 속성과 특징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관광발전 방향과 중점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관광부문의 발전도와 중요도간의 관계를 포트폴리오(portfolio) 분석을 실시하여 파악하였다. 중요도와 발전도 간의 관계를 4분면에 나타내고 각 항목의 영역별 의미를 해석하여 발전도 제고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중요도(importance)-성취도(performance) 분석기법의 메트릭스 구조와 유사한 방법으로 관광부문을 구성하는 각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초로 중요도와 발전도를 비교·분석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관광교류협력사업과 연계지역과의 영향 관계, 즉 관광교류협력사업이 연계지역의 관광발전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그 특징에 대해서 22개의 변수를 근거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파악하였다. 영향요인에 대한 대상변수 및 속성은 일반적인 기준의 선형연구를 기초로 관광의 긍정적인 효과 측면의 항목들을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변수 속에 내재된 상호관련성을 이용하여 공통적인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분석 시 직교회전 방법의 하나인 베리멕스(varimax) 방법으로 회전시켰으며, 요인의 추출방법은 주성분(principal components)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요인추출과정에 있어서는 고유값(eigenvalue)이 1.0 이상이며,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이 0.4 이상인 변수를 대상으로 범주화하였다. 요인범주 내 속성들의 결합에 대한 내적 일관성에 대한 신뢰도 검정은 크론바알파(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전체 항목에 대한 신뢰도 검사와 각각의 변수 및 요인들에 대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관광교류협력사업의 영향요인과 연계지역의 관광부문 속성간의 상호관련성 및 그 특징에 대해서는 행과 열의 분할표를 이용 행과 열의 유사성을 분석하여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대응일치분석을 실시하여 규명하였다. 관광교류협력사업의 영향요인과 연계지역 관광개발주체의 의식 성향 및 관광부문 속성간의 상호관계와 특징은 관광교류협력사업 연계지역의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관광개발주체의 관광마인드와 비전, 그리고 관광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주요 실행전략부문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IV. 실증분석 결과

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관광교류협력사업 연계지역의 관광개발주체로서 조사대상자들에 대한 인구통계적 특

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전체 조사대상자 가운데 지역주민은 39.7%, 관광관련 업체 종사자는 22.8%, 공무원 및 관광전문가는 20.6%, 금강산관광 관련종사자는 16.9%의 비율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성별분포는 남성(52.4%)이 여성(47.6%)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었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0대, 40대, 50대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 분포는 관광관련 업종 및 연령별 특성에서 기인된 월평균 200만원 미

만의 소득계층이 전체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월평균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계층은 9.0%에 불과하였다.

2. 관광교류협력사업과 연계지역의 특징 및 관계

1) 관광교류협력사업 연계지역의 관광현실과 특성

관광교류협력사업 연계지역의 관광현실과

<표 2> 관광교류협력사업 연계지역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구분	항 목	빈도(명)	비율(%)	구분	항 목	빈도(명)	비율(%)
성별	남	99	52.4	직업	지역주민	75	39.7
	여	90	47.6		공무원/관광전문가	39	20.6
연령	20대	49	25.9		관광관련업체 종사자	43	22.8
	30대	67	35.4		금강산관광 종사자	32	16.9
연령	40대	43	22.8	소득수준 (월평균)	100만원 미만	54	28.6
	50대 이상	30	15.9		100~200만원	77	40.7
					200~300만원	41	21.7
					300~400만원	15	7.9
					400만원 이상	2	1.1

<표 3> 관광교류협력사업 연계지역의 관광부문에 대한 발전도와 중요도

항 목	평균	표준편차	발전정도(점)*	중요도(%)**
관광자원 발굴 및 이용	3.116	0.848	62.3	9.1
관광레저 및 이벤트/축제	3.592	0.830	71.9	13.3
관광숙박시설	3.185	0.826	63.7	7.6
관광편의시설	3.518	0.796	70.4	10.6
관광기반시설(접근성)	3.127	0.768	62.5	5.1
관광안내체계 및 서비스 수준	3.301	0.811	66.0	8.6
관광홍보 및 마케팅	3.354	0.776	67.1	11.3
관광상품(다양성, 차별성, 경쟁력)	3.571	0.870	71.4	10.2
관광의식과 관광서비스 수준	3.349	0.859	67.0	11.9
관광정책 과제와 추진 상황	3.306	0.857	66.1	12.1
전체	3.342	0.812	66.8	100.0

* 80점 이상: 매우 발전, 70~80점: 발전, 60~70점: 다소 발전, 50~60점: 보통, 40~50: 다소 미발전, 30~40점: 미발전, 30점 미만: 매우 미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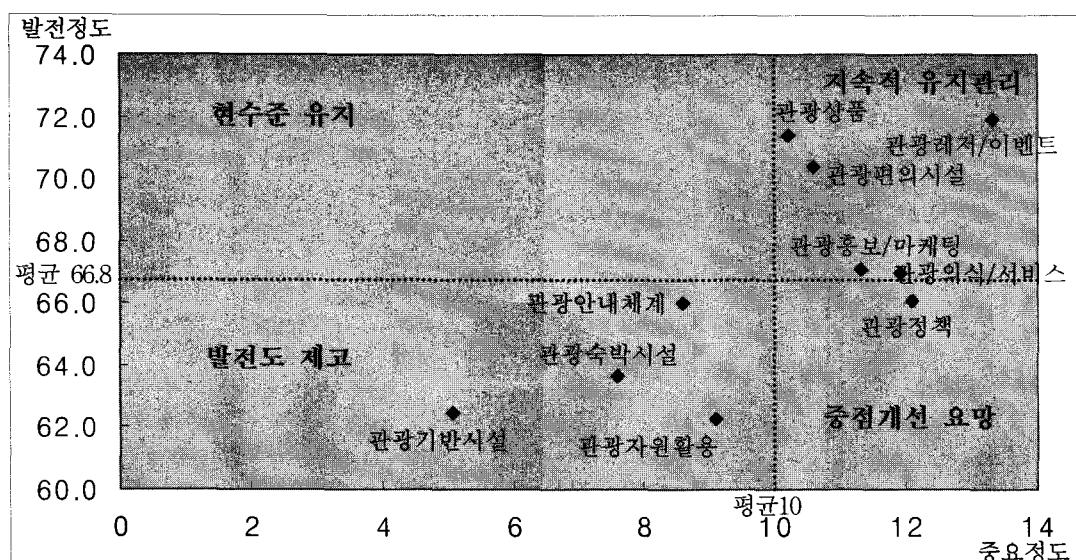
** 중요도는 관광부문 각 영역에 대한 전반적 발전정도와 관광부문 전반에 대한 체감발전정도간의 회귀분석 후 베타(Beta)값을 전체 100으로 하여 산정, 중요도의 합은 1.

특성, 즉 관광부문에 있어서 발전 현실과 그 실태에 관해서 연계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향후 관광교류협력사업을 연계한 관광발전 방안의 모색·강구차원에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

관광교류협력사업 연계지역의 관광현실과 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관광정책 과제 및 추진 과정” 등의 10개 영역을 평가 항목으로 구성하여 각 영역에 대한 발전 정도를 리커트 5점 척도법을 적용하여 기술분석과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각 항목에 대한 발전도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연계지역의 관광부문에 대한 발전 현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전체 평균 발전도는 66.8점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상위부문은 “관광레저 및 이벤트/축제”, “관광상품”, “관광편의시설” 영역 등인 반면, “관광자원 발

굴 및 이용”과 “관광기반시설(접근성)” 영역 등은 전체평균 이하의 최하위 영역으로 향후 관광교류협력사업 연계 발전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문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1>은 관광교류협력사업 연계지역의 관광부문에 대해 포트폴리오 분석 결과로서 영역별로 발전도와 중요도간의 관계를 4개 분면상에 구성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는 현시점에서 활용가능한 자원의 투입 순서를 결정하고 중점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관광교류협력사업과 연계한 관광부문 발전도를 높이기 위한 실행 방안을 찾아 볼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분석결과, 중요도는 높으나 발전도가 낮은 “관광정책 과제와 추진 상황” 부문은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 한 “중점개선 요망” 영역, 중요도와 발전도 모두 낮은 “관광자원 발굴 및 이용”, “관광안내체계”, “관광숙박시설”, “관광기반시설



<그림 1> 관광교류협력사업 연계지역의 관광부문에 대한 포트폴리오 분석

〈표 4〉 연계지역의 관광발전과 관광교류협력사업과의 관계

구 분	중요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	-	0	+	++		
지역주민	-	3	11	46	15	3.973	0.716
공무원 및 관광전문가	-	2	2	24	11	4.128	0.732
관광관련업체 종사자	1	2	8	26	6	3.790	0.833
금강산관광 종사자	-	4	3	21	4	3.781	0.832
전 체	1	11	24	117	36	3.931	0.772

(접근성)" 부문은 "발전도 제고" 영역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한편 중요도와 발전도 모두 높은 "관광레저 및 이벤트/축제", "관광상품", "관광편의시설" 부문은 "지속적 유지·관리" 영역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들 영역에 속한 "관광홍보 및 마케팅"과 "관광의식 및 관광서비스" 등의 2개 부문은 "중점 개선 요망" 영역으로 재분류하여 해석할 수 있다.

2) 관광교류협력사업과 연계지역의 관계

관광교류협력사업과 연계지역의 상호관계, 즉 관광교류협력사업이 연계지역의 관광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관광교류협력사업이 연계지역의 관광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도에 대한 전체적 평균은 3.9/5.0점으로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조사대상자별로 살펴볼 때 "공무원 및 관광전문가"와 "지역주민" 집단은 "관광관련업체 및 금강산관광 종사자" 집단보다는 관광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중요도 비중이 한층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공무원 및 관광전문가"와 "지역주민"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연계지역의 비전과 관광발전에 대한 기대를 관광교류협력사업에서 찾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관광교류협력사업의 영향요인 및 특성

관광교류협력사업이 연계지역의 관광발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22개의 대상변수를 중심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결과, 범주화된 6가지 요인과 명명된 그 속성은 "요인 1: 남북관광교류 거점", "요인 2: 관광이미지", "요인 3: 관광자원 활용 및 개발", "요인 4: 관광활성화", "요인 5: 관광관련 산업진흥", "요인 6: 지역경제 활성화"이다. 도출된 6가지의 요인들 가운데 분산설명력이 22.6%로 가장 높은 "남북관광교류 거점" 요인은 영향요인들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요인으로 해석되며, 다음으로 "관광이미지", "관광자원의 활용 및 개발" 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각의 요인별 항목들은 관광발전 영향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 속성 내지 영역을 나타내며, 이를 요인별 세부 속성은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에 의해서 각각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판단할 수 있다. 이를 결과를 역으로 해석하면 관광교류협력사업과 연계한 관광발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세부 속성들에 대한 개선책이 강구되어져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5〉 관광교류협력사업의 연계지역 관광발전 영향요인 및 속성

요인속성		요인적재량 (factor loading)	고유치 (eigenvalue)	분산비율* (Pct. of Var.)	신뢰계수** (Cronbach'a)
요인명	항목				
FAC 1: 남북관광교류 거점	남북교류(협력) 전진기지	.845	4.976	22.6%	.826
	남북관광교류 거점위상 증대	.827			
	남북관광개발사업 증대	.706			
	남북관광투자의 활성화	.692			
FAC 2: 관광이미지	지역사회 관광문화 발전	.811	4.534	20.6%	.810
	지역 홍보 효과	.776			
	지역 이해도 상승	.722			
	지역 이미지 개선	.647			
FAC 3: 관광자원 활용 및 개발	역사안보자원의 개발	.760	1.463	6.6%	.770
	전통문화자원의 개발	.758			
	해양자원의 개발	.711			
	관광상품 및 서비스 개발	.589			
FAC 4: 관광활성화	국내관광객 증대	.815	1.298	5.9%	.778
	외래관광객 증대	.808			
	지역관광의 질적 향상	.668			
	체류관광 활성화	.616			
FAC 5: 관광관련 산업진흥	이벤트/축제산업 활성화	.680	1.089	5.0%	.684
	관광관련 사업투자 증대	.628			
	관광관련업체 증가	.553			
FAC 6: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소득 증대	.870	1.050	4.8%	.650
	지역고용 창출	.606			
	타지역과의 경제교류 활성화	.547			

* 추출된 요인별 설명분산의 누적계수는 65.5%임

** 전체 Cronbach'a = 0.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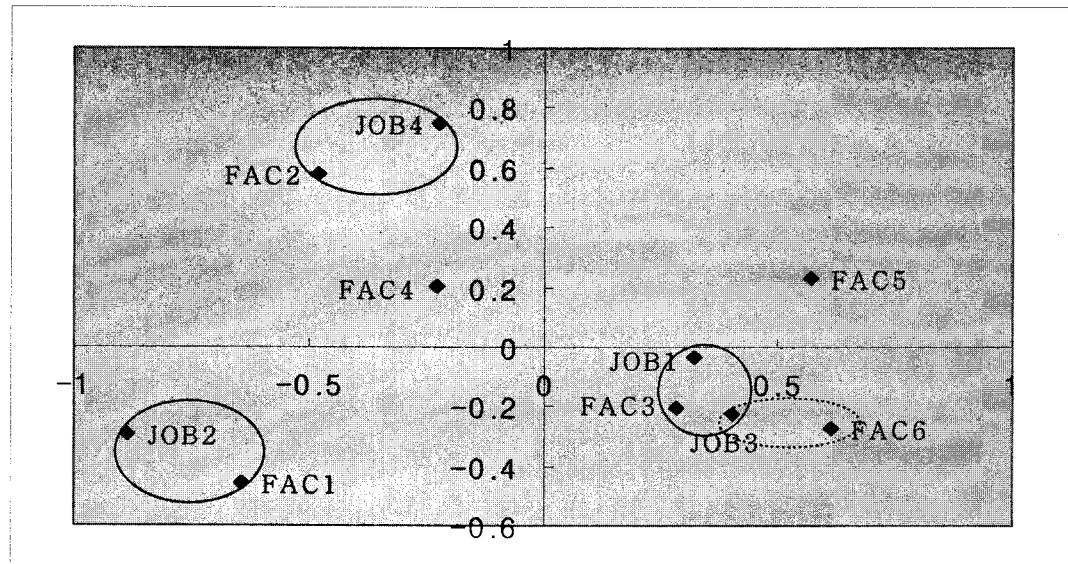
4. 관광교류협력사업 영향요인과 연계 지역 관광부문 속성간의 상호관계 및 특징

1) 관광교류협력사업 영향요인과 연계지역 관광개발주체 속성과의 관계

관광교류협력사업 영향요인과 연계지역 관광개발주체 속성과의 관계, 특히 다양한 관광개발주체들의 의식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표 4〉의 조사대상자 집단과 〈표 5〉의 관광교류협력사업 영향요인에 대한 상호관계를 지각도상에 나타내는 대응일치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

다. 관광교류협력사업 연계지역의 관광개발 주체인 조사대상자 속성(JOB1~JOB4)과 관광교류협력사업 영향요인(FAC1~FAC6)간의 관계를 차원1(X축)과 차원2(Y축)의 좌표 상에 나타낸 각 좌표점의 위치는 이들 상호 관계를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한다. 이를 상호관계를 차원1(79.9%)과 차원2(19.8%)상에 도식적으로 표시한 누적 설명분산은 99.7%로 나타나 매우 유의적인 지각도상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다.

분석 결과로서 “남북관광교류 거점(FAC1)” 요인은 4개 집단 가운데 “공무원 및 관광전문가” 집단, 그리고 “관광이미지



〈그림 2〉 관광교류협력사업 영향요인과 연계지역 관광개발주체 속성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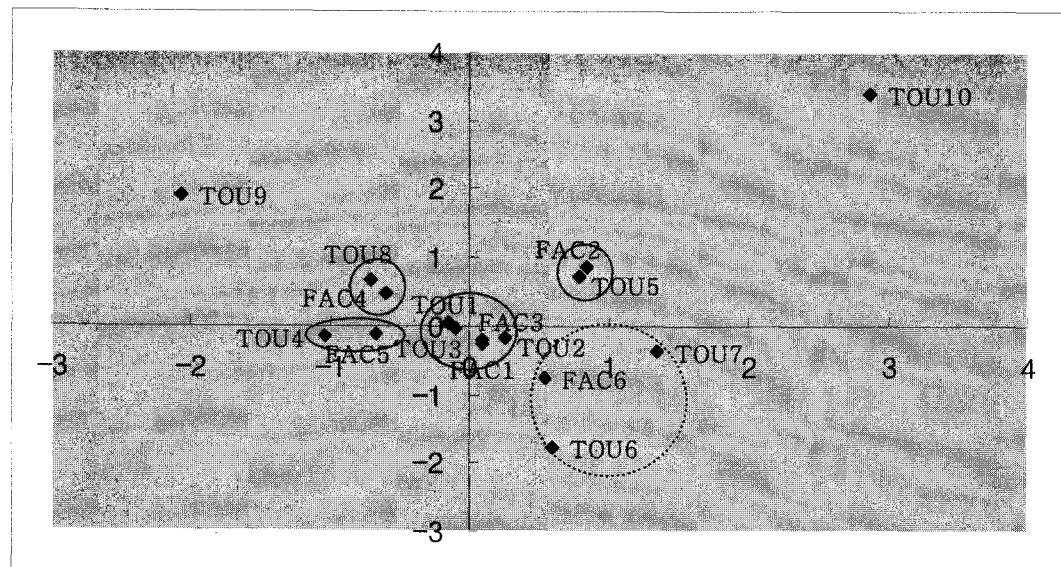
Configuration Points	Point Definition	Coordinations of X (차원1)	Coordinations of Y (차원2)
JOB 1	지역주민	.324	-.036
JOB 2	공무원/관광전문가	-.884	-.293
JOB 3	관광관련업체 종사자	.403	-.225
JOB 4	금강산관광 종사자	-.223	.745
FAC 1	남북관광교류 거점지역	-.642	-.458
FAC 2	관광이미지	-.481	.579
FAC 3	관광자원 활용 및 개발	.285	-.205
FAC 4	관광활성화	-.228	.204
FAC 5	관광관련 산업진흥	.571	.233
FAC 6	지역경제 활성화	.613	-.275

주: 설명력 99.7% (차원1: 79.9%, 차원2: 19.8%)

(FAC2)" 요인은 "금강산관광 종사자" 집단과 서로 관계가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금강산관광 종사자 집단의 경우 금강산관광사업으로 인한 관광이미지 제고라는 "편의 측면", 그리고 공무원 및 관광전문가 집단의 경우는 "금강산관광사업의 활용 측면", 바꾸어 말하면 남북관광교류거점지역으로의 지속적인 확대·발전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각 집단의 사고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삶의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있는 "지역주민"과 "관광관련업체 종사자" 집단은 "관광자원활용 및 개발(FAC3)" 요인에 오히려 관련성이 높았으며, 이를 집단 가운데 "관광관련업체 종사자" 집단은 "지역경제 활성화(FAC6)" 요인과도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관광교류협력사업 영향요인과 연계지역 관광부문 속성과의 관계

Configuration Points	Point Definition	Coordinates of X (차원1)	Coordinates of Y (차원2)
TOU 1	관광편의시설	-.157	.041
TOU 2	관광정책 과제와 추진 상황	.252	-.163
TOU 3	관광숙박시설	-.105	-.032
TOU 4	관광레저 및 이벤트/축제	-1.035	-.137
TOU 5	관광의식 및 관광서비스 수준	.788	.734
TOU 6	관광상품(다양성, 차별성, 경쟁력)	.601	-1.764
TOU 7	관광기반시설(접근성)	1.341	-.361
TOU 8	관광자원 발굴 및 이용	-.706	.660
TOU 9	관광홍보 및 마케팅	-2.075	1.888
TOU 10	관광안내체계 및 서비스 수준	2.872	3.382
FAC 1	남북관광교류 거점지역	.090	-.263
FAC 2	관광이미지	.835	.866
FAC 3	관광자원 활용 및 개발	.094	-.202
FAC 4	관광활성화	-.603	.483
FAC 5	관광관련 산업진흥	-.674	-.121
FAC 6	지역경제 활성화	.542	-.771

주: 설명력 96.5%(차원1: 62.7%, 차원2: 33.8%)

2) 관광교류협력사업 영향요인과 연계지역 관광부문 속성과의 관계

관광교류협력사업 영향요인과 연계지역 관광부문 속성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표 5>의 관광교류협력사업 영향요인과 <표 3>에서 10개 영역으로 구별한 연계지역 관광부문에 대한 상호관계를 지각도상에 나타내는 대응일치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연계지역의 관광부문 속성(TOU1~TOU10)과 관광교류 협력사업 영향요인(FAC 1~FAC 6)간의 상호관계를 차원1(X축)과 차원2(Y축)의 평면 좌표에 도식적으로 표시한 누적설명분산은 96.5%로 나타나 매우 유의적인 지각도상의 관계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로서 “남북관광교류 거점(FAC1)” 및 “관광자원 활용 및 개발(FAC3)” 요인은 관광부문 속성 가운데 “관광정책 과제와 추진 상황”, “관광숙박시설”, “관광편의시설” 영역,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FAC6)” 요인은 “관광상품” 및 “관광기반시설(접근성)” 영역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광이미지(FAC2)” 요인은 관광부문 속성 가운데 “관광의식 및 관광서비스 수준” 및 “관광안내체계 및 서비스 수준” 영역, 그리고 “관광활성화(FAC4)” 요인은 “관광자원 발굴 및 이용” 및 “관광홍보 및 마케팅” 영역과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광관련산업 진흥(FAC5)” 요인은 “관광레저 및 이벤트/축제” 영역과 비교적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관광교류협력사업 연계한 관광발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전략부문, 즉 각 영향요인별 세부 실행전략부문으로서 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V. 결 론

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관광교류협력사업과 연계지역의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금강산관광사업과 강원도 고성군을 중심으로 관광발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조사·분석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관광교류협력사업과 연계하여 주변지역의 관광발전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내선행연구가 미흡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관련 연구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3가지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결과와 그에 따른 몇 가지 시사점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교류협력사업 연계지역의 관광현실 및 특성 측면에서 관광부문의 현실을 직간접적으로 대변해주는 관광부문관련 10개 영역에 대한 낮은 평가 결과는 관광교류협력사업과 연계발전 도모 시 열악한 관광여건 및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관광자원의 발굴과 이용”, “관광기반시설로서 접근성” 영역은 해결해야 할 주요과제부문으로 나타났다.

관광교류협력사업 연계지역의 관광부문 특성은 10개 영역에 대한 중요도와 발전도의 포트폴리오 분석 결과 “중점적 개선 요망”, “발전도 제고”, “지속적 유지·관리” 등 3가지 중점개선과제 부문으로 특징지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관광교류협력사업을 연계한 관광발전 전략 수립 시 의사 결정기준, 즉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떠한 부문에 투자우선순위를 두고 실행전략을 수립해야 하는지를 시사하고 있다. 중점적 개선 요망 부문에 유일하게 속한 “관광정책

과제와 추진 성과”, 그리고 발전도 제고 과제로 부각된 “관광자원의 발굴과 이용”, “관광기반시설로서 접근성”,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안내체계” 영역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사료된다.

관광교류협력사업은 연계지역의 관광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되며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주변지역의 높은 기대와 비전은 자생적 관광개발 보다는 연계관광개발에 더 많은 발전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관련된 행정적·재정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조사대상자 가운데 “공무원 및 관광전문가”와 “지역주민” 집단은 “금강산 관광 종사자” 및 “관광관련업체 종사자” 집단에 비해 관광발전 원동력으로서 관광교류협력사업에 더 높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두 집단간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 특히 공익성(편의성)과 영리성(상업성)이라는 집단간의 중심 사고 차이에서 연유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관광교류협력사업이 연계지역의 관광발전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그 특징은 “남북관광교류 거점”, “관광이미지”, “관광자원 활용 및 개발”, “관광활성화”, “관광관련 산업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속성과 의미 순으로 나타났다. 요인적재량에 의해서 해석될 수 있는 각 요인별 세부 속성들에 대한 의미와 중요 정도는 관광교류협력사업을 연계한 관광발전 노력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정책분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향후 확대될 남북한간의 관광교류협력사업의 영향요인에 대해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셋째, 관광교류협력사업 영향요인과 연계지역 관광부문 속성과의 관계 측면에서 관광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관광개발주체별 의식성향, 즉 조사대상자 집단간의 의식성향은 서로 상이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공무원 및 관광전문가” 집단은 육로관광과 나아가 철도관광으로 확대·발전하게 될 관광교류협력사업 측면에서 남북관광교류거점으로서 큰 의미를 두고 있는 반면, “지역주민과 관광관련업체 종사자” 집단은 오히려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개발할 수 있는 모티브로서 관광교류협력사업에 그 의의를 두고 있었다. 그리고 금강산관광사업 조직 구성원으로서 “금강산관광 종사자” 집단은 다른 집단과는 달리 관광이미지, 바꾸어 말하면 관광교류협력사업으로 인해 파생되는 일반적인 편익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집단간의 의식성향 차이는 지역의 개발주체와 제3자의 입장 차이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실례로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관광교류협력사업 영향요인과 관광부문의 10개 영역을 대상으로 대응일치분석결과는 관광교류협력사업과 연계한 관광발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주요 정책방향과 전략부문을 시사해준다. 연구결과로서 “남북관광교류거점”과 “관광자원 활용 및 개발”의 경우는 관광정책 및 관광기반/편의시설 부문, “관광이미지”的 경우는 관광의식과 관광서비스 부문, “관광활성화”的 경우는 관광자원이용 및 관광홍보/마케팅 부문, “관광관련 산업진흥”的 경우는 관광레저/이벤트 부문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각각의 영향요인과 관련관광부문들은 향후 고려해

야할 주요 관광정책분야로서, 그리고 정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주요 전략부문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관광교류협력사업과 연계지역의 관광발전 영향요인과 그 특징 등을 규명하였다는데 있어서 의의가 있지만 이러한 결과는 연구과정에서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도출되었음으로 이에 대한 보완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더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결과의 일반화 차원에서 남북이라는 특수한 정치적 상황과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많은 영향과 제약을 받고 있는 남북관광교류협력사업의 특성상 본 연구의 실증사례로서 금강산관광사업과 고성군에 대한 연구결과는 보편성 차원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남북관광교류협력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화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둘째, 본 연구의 설문대상 선정에 있어서 보다 다양한 관광개발주체, 특히 관광교류협력사업 관계자 및 관련 정부 관계자 등을 포함시켰어야하나 일부 특정대상을 중심으로 표본이 선정됨으로서 표본 대표성이 명백하지 못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결과를 보다 객관화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노력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는 남북관광교류협력사업으로서 금강산관광사업의 특성, 즉 정치적 상황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고 민간기업의 개별사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관광교류협력사업의 특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사업주체 측면을 반영해야 했으나 연계지역의 관점에 국한된 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의 의의가 축소되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관광교류협력사업의 특성을 보다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논문접수일: 2006년 5월 29일)

(제재확정일: 2006년 12월 19일)

참고문헌

- 권영섭(2000), “남북 관광교류협력의 문제점 및 잠재력”, *한국관광정책* 7, 26-31.
강원택(1999),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 연구결과보고*, 경남대 극동문화연구소 연구보고서.
강인원(2006), “동부접경지역 문화클러스터 육성과 특성화 방안”, EEC 프로젝트의 가능성과 정책대안: 남북접경지역 균형 개발과 한반도 평화, 대한민국국회 정책 세미나 자료집.
건설교통부(1999),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김성섭(2004),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시민 의식 분석”, *관광학연구* 28(1), 283-298.
김연중(2001), “금강산사업과 남북한관광 공동개발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 5(2), 북한연구학회.
- 김연철 외(1998), “남북교류협력분야 활성화의 조건과 장애요인”, 통일한국 174, 21-39.
- 김영윤(2006),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6-1, 통일연구원.
- 김철원(2002), “남북한 관광사업 협력을 추진 방안”, 통일논의리뷰 2, 142-165.
- 노경수(1996), 『통일을 대비한 관광진흥정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준규(2003), “외래관광객 천만명 시대를 대비한 남북관광교류방안”, 외국인 관광객 천만명, 과연 가능한가, 한국관광학회 정책포럼 자료집.
- 문화관광부(2001),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
- _____ (2001), 평화와 관광에 관한 서울선언문(the Seoul Declaration on Peace and Tourism).
- _____ (2005),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신용석(2005), 남북관광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심상진(2005), “금강산관광의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경기대 박사학위논문.
- 안병민(2002), “남북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통부문의 역할”, 한국관광정책 7, 한국관광연구원.
- 이광희(2000), “금강산-설악산 연계 관광교류 촉진 방안”, 도시문제 380, 57-63.
- 이장춘(1998), 남북 관광사업의 방향과 기대 효과, 통일경제 9.
- _____ (2001), 관광정책학, 제3판, 서울: 대왕사.
- 장병권(2006), “관광진흥에서 보는 대북협력”, 관광진흥에서 보는 남북협력, 남북협력에서 보는 관광진흥, 한국관광공사 포럼자료집
- 장인봉(2004), “남북한 관광교류·협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독일 경험의 벤치마킹을 중심으로”, 컨벤션연구 4(3).
- 한국관광공사(1998), 남북연계관광상품개발 방안.
- _____ (2001), 북한의 관광특구 확대 가능성 및 발전방안.
- _____ (2004), 2004년 금강산 관광실태 및 만족도 조사보고서.
- _____ (2005), 묘향산·평양방문 만족도 및 관광실태 조사보고서.
- 현대아산(2005), 내부자료
- 현대경제연구원(1999), “금강산관광사업 1주년 평가와 전망”
- Asia Travel Tips(2005), “World Tourism Organization underscores links between peace and tourism in South Asia”, 18 April.
- Bianchini, F.(1994), "Remaking European cities: the role of cultural policies", Bianchini, F. & Parkinson, M. (ed.), *Cultural Policy and Urban Regeneration - The West European Experience*,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Broyley, R. and Var, T.(1989), Canadian Perceptions of Tourism Influence on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Annals of Tourism Research* 16(4).
- Butler, R. and Mao, B.(1995), "Tourism between partitioned states: the need

- for a new conceptual approach", Asia Pacific Tourism Association Meeting, Pusan, Korea.
- _____(1996), "Tourism between quasi-states: International, domestic or what?", in R. Butler & D. Pearce (eds.), *Change in Tourism: People, places and processes*, London: Routledge.
- Choi, Y. M.(1998), Trend Tourism Development After Upheaval: Focused on Central and Eastern Europe (CEE) and its effects for Korean Case, 한국관광개발학회, 관광개발논의 9.
- Choi, Y. M.(1999), "Tourism Planning Towards Integration of the Two Different Tourism Systems during and Post-Unification in the Germany", 관광 레저연구 9(1), 249-258.
- Cleverdon, R. and Edward, A.(1982), *International Tourism to 1990*, ABT Associates Inc., 140-142.
- Edgell, D. L.(1990), *International Tourism Policy*, Mass Society, New York.
- Frangialli, F.(2004), "Hope, all the same", on the Occasion of the Third Prime Minister's Conference for tourism to Israel, Jerusalem, 22-24.
- Higgins-Desbiolles, F.(2003), "Reconciliation Tourism: Tourism Healing Divided Societies", *Tourism Recreation Research* Vol. 28(3), 35-44.
- Inskeep, E.(1991), *Tourism Planning: An Integrated Sustainable Development Approach*,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 Kim, Y. and Crompton, J.(1990), "Role of Tourism in Unifying the Two Koreas",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17, 353-366.
- Leslie, D.(1996), "Northern Ireland, tourism and peace", *Tourism Management*, Vol. 17(1), 51-69.
- Mathieson, A. and Walle, G.(1982), *Tourism: Economics, Physical and Social Impacts*, New York: Longman.
- Negrier, E.(1994), "Montpellier: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community access", Bianchini, F. & Parkinson, M. (ed.), *Cultural Policy and Urban Regeneration - The West European Experience*,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Pearce, D. (1989), *Tourism Development*,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William, C. G.(1996), *Tourism Development: Principles, Processes, and Policies*, ITP.
- Yu, L.(1997), "Travel between politically divided China and Taiwan Straits", *Asia Pacific Tourism Journal of Tourism Research*.
- Zhang, G.(1993), "Tourism crosses the Taiwan Straits", *Tourism Management*, Vol. 14, 228-231.

〈Abstract〉

The Study on the Effect of Inter-Korean Tourism Cooperation on the Local Tourism Development: the Case of Mt. Kumgang Tourism Business and Goseong Region

Kang, In-Won*

Inter-Korean cooperative tourism business has turned mutual confrontation and tension between two Koreas for the past 50 years to a peace, stability, mutual understanding and co-prosperity. Currently, with a million tourists visiting Mt. Kumgang, a new chapter for reconciliation and peace opened in inter-Korean cooperation.

This study was initiated as an attempt to discern how inter-korean cooperative tourism business can effectively promote local tourism and economy.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1) to explore the present tourism situation of Goseong in Gangwon province such as tourism policy, tourism ressources and infrastructure, tourism products and tourist arrivals; (2) to examine the effect of Mt. Kumgang Tourism Business on the tourism development of Goseong; and (3) to investigate any significant relationship among its factors. This study examines the experiences of 189 Goseong resident group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provide future policy makers with useful implications in tourism planning and management.

Key words: Inter-Korean tourism cooperation, Mt. Kumgang tourism business, Local tourism development, Influence Factors.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International Tourism Management, Sorabol College